

# 경운기를 이용한 능률적인 옥수수 파종법

## 〈머리말〉

**초식** 가축을 기르는 농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질 좋은 조사료를 많이 확보함이 경영의 지름길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경지가 좁은 우리네 실정으론 단위 면적당 수량도 많고 영양이 풍부한 사료작물이 요구되는데 그런 점에서 사료용 옥수수는 빼 놓을 수 없는 작목일 것이다.

필자는 낙농을 경영하면서 사일리지용 옥수수의 다수확 재배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지만 옥수수 파종에 대해서는 여러 해를 두고 생력(省力)적인 파종 방법을 검토한 바 있다.

대 농기구를 갖추고 수 만평의 사료포를 경작하는 기업목장은 예외지만 가족 경영의 낙농 규모로는 이 경운기를 이용한 파종법을 잘 활용하면 옥수수 재배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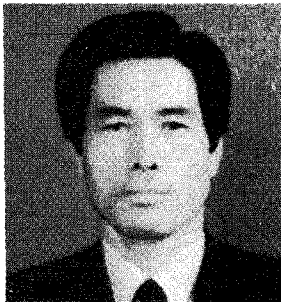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경운기를 부리는 사람과 씨앗을 놓는 사람, 즉 부부 노동력으로도 하루에 1천 5백평은 거뜬히 파종할 수

있었다. 경운작업을 한 후 줄을 대어 호미로 한 알씩 파종하거나 축력을 이용하여 새로 골을 타서 파종하는 등의 재래적인 방법은 빨리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 〈작업과정〉

두엄이나 비료를 전면에 뿌려서 경운 작업을 하도록 준비된 포장에 경운기 저속기어와 작업표시 「갈계」쪽으로 변속하여 경운기 힘을 최대로 올려 로타리 작업을 한다. 이때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깊게 경운하는데 발이 아주 딱딱하고 거칠면 1단으로, 발이 부드러우면 2단으로 작업한다.

밭의 형태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가급적 긴 사래로 첫 로타리 작업을 비틀거리지 않도록 바르게 한 후 다음 작업은 첫번째 방향따라 작업해 나간다. 로타리 작업 중심과 중심의 거리는 60~70cm 가량 되도록 하는데 60cm가 넘으면 경운(로타리)이 되지 않는 땅이 조금 남게 되지만 크게 문제될게 없으므로 파종하려는



**김 동 봉**  
경남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630  
(고성낙우회장)

골의 너비는 70cm 정도가 좋았다. 이렇게 알맞은 간격으로 로타리 작업을 정밀히 하게 되면 로타리 회전력에 의하여 깊이 12cm 가량의 골이 패이게 된다. 파종은 이 골에 20~24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옥수수 씨앗을 놓아 나가면 된다. 이 파종작업은 로타리 작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 로타리작업이 끝날 때쯤 파종작업도 거의 동시에 끝나게 된다. 만일 파종이 일부분 덜 되었다 해도 경운기의 다음 복토작업을 할 동안 나머지를 파종하면 되니까 걱정할 일 아니다.

정해진 포장에 로타리작업이 끝나면 복토작업을 해야 하므로 로타리 칼날 중 양쪽의 칼날을 한 쪽에 3개씩 모두 6개를 풀어내고 복토작업을 하는데 이 때는 로타리 칼날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5~6cm 정도로 얇게 조정해야 한다. 경운기 타이어가 옥수수 파종된 골에 들어가도록(양쪽 타이어가 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한 쪽만)하여 경운기를 진행해 가면 이랑의 흙이 골진 곳으로 이동하여 평면이 유지되면서 밭 전면이 아주 고르게 정지작업이 된다.

이 로타리 복토작업은 전(前)작물의 뿌리나 그루터기 등도 잘게 부서트리는 역할을 하여 축력(畜力)으로 하는 작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또한 파종 후 제초제 살포를 하는데도 아주 효과

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복토작업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경운기 로타리 칼날 중 양쪽 부분의 칼날 4~6개는 꼭 풀어내어야 하는 일이다. 칼날을 빼어내지 않고 작업하게 되면 파종된 씨앗을 로타리 칼날이 딴 곳으로 이동 시키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날씨가 가물 때 파종하려면 씨앗과 흙의 밀착이 아주 중요하므로 경운기 타이어를 좁혀서(타이어 안쪽의 고정가락지를 바깥으로 났) 작업하면 양쪽 타이어가 파종된 골에 꼭 맞게 굴러감으로 타이어가 종자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므로 아주 효과적인 파종이 된다.

### 〈맺는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특수한 전용 파종기를 사지 않고도 웬만한 농가에 다 갖고 있는 경운기 이용의 옥수수 파종법은 언뜻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실험해 보면 크게 능률적인 방법임을 알 것이다. 인건비는 치솟고 사람은 귀해져 돈을 주고도 품을 살 수 없는 판국이니 어떻게든 덜 들고 능률을 올리는 생력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기존 있는 기계의 간단한 응용으로 너댓 사람이 해야 할 작업을 부부가 할 수 있다면, 또 같은 인력으로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다면 과감히 방향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 작은 아이디어가 우리 영세한 낙농가의 옥수수 파종작업에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존 있는 기계의 간단한 응용으로 너댓 사람이 해야 할 작업을 부부가 할 수 있다면 또 같은 인력으로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다면 과감히 방향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